

충인비리 녹취록·문건 누가 어떻게 작성했나

# 만남 장소·금품거래 내역 등 일부 사실로 확인...관심 집중

민선 5기 들어 광주시가 발주한 1000억원대 총인저감시설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진전을 보이면서 수사의 실마리를 제공한 녹취록과 문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녹취록과 문건은 지역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이 지난해 10월 광주지검에 전달한 것으로, 수사 초기에는 작성자와 그 의도가 불분명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최초 녹취록과 문건의 신빙성을 낮게 봤지만 최근 대립산업 운모상무의 구축과 함께 수사가 급진전을 보이면서 이들 자료 중 일부가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실시된 공시비 982억원의 총인저감시설 설치공사 전기(설계·시공일괄)입찰에는 모두 대립산업·금호산업·현대건설·코오롱건설 등 4곳의 대기업이 지역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당시 이들 컨소시엄들이 대규모 공사역수와 건설 불경기 등의 여건 속에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각종 인

맥을 총동원해 경쟁을 벌였다는 풍문이 광주시 주변에 나돌았으며, 대립산업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된 뒤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문제는 광주시가 시공사 선정 후 대립산업에 1위를 준 심사위원들 돌연 해촉하면서 불거졌다. 광주시의회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참여자치 21이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때만 해도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 곧 잠잠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대세를 이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참여자치 21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광주시 4급 서기관이 대립산업 전남지사장과 지역 전기사업자 등과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태는 돌변했다. 녹취록에 등장한 이 공무원은 자신이 대립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 '작전'을 펼쳤다고 대립 지사장에게 지역 전기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것을 부탁한 것이다.

이 대화는 남구 백운동 한 식당에서 이뤄진 것으로, 녹취록이 공개되자 '개인적인 만남'의 약속 장소와 좌

석, 시간대까지 파악해야 가능한 녹취록을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가 논란이 됐다. 검찰 역시 녹음파일과 이 파일에 담긴 대화의 요약본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작성자에 대한 수사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2차로 공개된 문건 역시 업체 관계자와 심사위원 이름, 업체 상층부 지시 내용, 공무원들과 만난 시간, 대화 내용, 금품 거래 액수 및 향후 약속 등을 모두 담고 있다. 심사위원과 관련 공무원들의 신원은 물론 업체 관계자의 움직임까지 상세히 적혀있다는 점에서 작성자가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 정도만 가능한 실정이다.

녹취록과 문건 등을 받아 검찰에 전달한 참여자치 21 관계자는 "제보자의 신분 보호 차원에서 신원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작성자의 의도나 작성자의 이력 등이 문제가 아니라 녹취록과 문건, 자료 등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대 60주년 기념 조형물

전남대학교 2012년 개교 60주년 기념 조형물에 윤선중 작가의 '미래를 향한 빛'(조감도)이 선정됐다. 전남대 총동창회(회장 최상준)는 최근 지역과 대학 구성원이 함께하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념 조형물 제작을 추진, 현상 공모를 통해 윤 작가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했다. 윤씨의 작품은 전남대가 추구하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창조와 비전 그리고 도약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전남대학교 2012년 개교 60주년 기념 조형물에 윤선중 작가의 '미래를 향한 빛'(조감도)이 선정됐다.

전남대 총동창회(회장 최상준)는 최근 지역과 대학 구성원이 함께하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념 조형물 제작을 추진, 현상 공모를 통해 윤 작가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했다. 윤씨의 작품은 전남대가 추구하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창조와 비전 그리고 도약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2월 한파' 또 온다

### 광주·전남 강추위 한두차례 예고

지난 2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영하 5.2도까지 떨어져 30년 만에 당일 최저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북극한파'로 인한 강추위가 2월에 한 두 차례 더 찾아올 전망이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중순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동폭이 크고, 이날 하순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차례로 받다가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2월은 원래 한겨울 추위를 몰고 오는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서서히 약해지고, 날씨 변화도 심하다"며 "2월 한파가 예상되는 이유는 지난달 중순까지 소강상태를 보이던 대륙

고기압이 최근에는 예년보다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은 6일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 늦게부터 남해안지역에 5~10mm, 광주·전남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7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떨어지고 눈이 내리는 등 당분간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10일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8분 해질 18시 05분 달돋이 16시 31분 달질 05시 53분

오후에 가끔 비  
대체로 흐리고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다.

광주	구름많음	0/8℃
목포	흐림	1/7℃
여수	흐림	3/9℃
나주	구름많음	-2/8℃
완도	흐림	3/8℃
구례	구름많음	3/9℃
강진	흐림	2/8℃
해남	흐림	1/8℃
장흥	흐림	1/8℃
순천	구름많음	0/10℃
영광	흐림	0/7℃
진도	흐림	3/8℃
전주	구름많음	-1/8℃
군산	구름많음	-1/6℃
남원	구름많음	-3/8℃
홍산도	흐림	4/8℃

〈오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오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1.0~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5~2.5m

◇주간날씨  
날씨 7(화) 8(수) 9(목) 10(금) 11(토) 12(일)  
최저/최고 -2/-1 -6/0 -4/2 -5/1 -4/4 -2/6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광주대·동신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개설**

광주대와 동신대는 최근 광주·전남지역 대학 최초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원격기반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학점은행제는 교과부 인증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면 학위를 주는 제도로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하나로 도입됐다.

강의와 시험 등 모든 학사일정이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4년제 학위와 함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관련 국가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광주대는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첨단 원격강의시스템인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LCMS) 등을 갖추고 사회복지학, 아동학(보육), 경영학, 교양과정 등 14과목을 3월 개강한다.

동신대 원격평생교육원은 사회복지실천론·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등 2개의 사회복지학 전공 과목과 교육심리학, 건축과 주거환경, 생활영어, 음악개론 I, 인간관계론, 경영학개론, 일본어 등 7개의 교양과목이 개설돼 있다.이성주 동신대 원격평생교육원장은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분들이나 학위가 있으면서도 새로운 분야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학점은행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엑스포·F1 등 잇단 국제행사 개최 만전

### 전남경찰 국제범죄수사대 신설

전남지방경찰청이 지역에서 잇따라 열리는 대형 국제행사의 안전도모와 외국인 범죄 수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제범죄수사대를 신설했다. 전남경찰청은 5일 오후 5월 열리는 여수 세계박람회와 10월 영암 F1 국제자동차경주 대회 등 외국인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에 대비해 국제범죄수사대를 운영한

다고 밝혔다. 또 국제범죄수사대는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를 경찰서 중심에서 광역 수사 체계로 전환,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힘쓴다. 지방청 보안과 외사계 직원 등 9명으로 구성된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 범죄를 비롯한 첨단 산업기술 유출사범 등을 전담하게 된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구당 뜰 시술은 합법"

### 서울고법 원고 승소 판결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침뜸 의료 활동을 하는 구당(灸堂) 강남수(97) 용이 '침사 자격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지금은 없어진 침침사제도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침사들의 뜰 시술 행위는 합법이 된다.

/연합뉴스

SINCE 1982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젠 톤-

**말 소리가 잘 안들리니까요?**

**국제보청기**

www.kjhr.com

-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점 062-227-9940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충장점 062-227-9970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 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X 핀X

50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인기대신사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가발

**이태리가구 쇼핑몰**

www.100424.com  
(천사24닷컴)

신상품 입점: 100~200만원대 식탁 거실TV장

홍스케이스 1899-0240

홍은 수입원/직수입 → 도매가 판매  
이태리가구 빌딩 400평 매장

동구 장동 58-15 장동로터리 동구청-전남여고사이